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 탐색: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인숙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창업지원교육센터 센터장)*

양지희 (동덕여자대학교 교육컨설팅학과 박사과정)**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내 청년의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여 대학의 지원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509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인식과 요구, 대학지원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년창업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학의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요구로는 ‘청년창업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지역내 청년창업에 대한 이미지는 ‘도전적인’, ‘변화하는 시대에 잘 맞는’이라는 이미지가 높게 인식되었다. 둘째,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청년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 ‘멘토링’, ‘창업교육’, ‘창업공간 조성’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연령별로 상이한 요구를 보였다. 셋째,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지원 요구를 분석한 결과,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참여기관 선택기준,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참여기간,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방법에 대한 요구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의 지원에 대한 시사점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인프라와 지역 상생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 상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예비 청년창업가의 요구분석에 기반하여 단계별 체계적인 마이크로 러닝(Micro-Learning)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내 지역주민 개방형 청년창업 거점공간을 구성하고, 대학내외 창업 과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과 대학에서의 청년창업 지원전략 수립 및 운영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주제어: 청년창업, 청년창업생태계, 대학-지역 연계, 요구분석, The Locus for Focus

1. 서론

1.1. 연구배경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창업은 위기를 넘어 혁신을 이루는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전되면서 세계적으로 창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특히 아시아 창업생태계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스타트업게놈(Startup Genome)에서 발표한 2021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Startup Genome, 2021)에 따르면 상위 30대 생태계는 북미 지역이 50%, 아시아가 27%, 유럽이 17%로, 아시아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특히 서울은 2020년 20위에서 2021년 16위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제2벤처붐이 일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를 반증하듯 국내에는 2017년 3개에 불과하던 유니콘 기업이 2021년 15개로 5배 증가하였으며, 예비유니콘 기업도 392개로 추정된다(중소벤처기

업부, 2022a).

우리나라는 지역내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하여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지역혁신사업, LINC사업 등을 통해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내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고 있다. 이는 제2벤처붐의 핵심동력이자 청년창업 지원의 중요 기관으로 대학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을 의미한다.

대학에서 창업생태계의 핵심요인은 지역내 기업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나 적극적인 외부자원의 이용(Miller & Acs, 2017) 등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토양이 그 안에서 자라는 많은 유기체의 순환에 의해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창업생태계 역시 그 안에 있는 창업기업의 순환에 의해 육성되고, 창업기업가들의 시간(Time), 노력(Effort), 그리고 자본(Venture capital money)의 재순환에 의해 창업생태계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Startup Genome, 2021).

* 주저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창업지원교육센터, kis1@ut.ac.kr

** 교신저자, 동덕여자대학교 교육컨설팅학과 박사과정, yang2019@dongduk.ac.kr

· 투고일: 2022-05-10 · 1차 수정일: 2022-07-11 · 1차 수정일: 2022-08-08

· 1차 수정일: 2022-08-19 · 게재확정일: 2022-08-26

그러나 대학의 창업지원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학이 보유한 창업 관련 네트워크, 인력, 인프라 등이 지역의 생태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머무르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용태, 2021). 또한 창업생태계적 관점에서는 특정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 창업정책,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중심의 추진체계, 자금조달의 어려움, 재창업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한국은행, 2020)

지역내 청년은 개인별 직업과 상황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맞춤형 창업정책 지원이 필요하다(안태욱·강태원, 2020). 이는 청년창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내 청년의 요구를 기반으로 창업생태계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김성훈·남정민, 2016). 따라서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생태계와 연계된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한 대학의 실질적인 청년창업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내 청년의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여 대학의 지원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요구는 어떠한가? 셋째,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지원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2.1. 청년창업생태계

창업생태계란 일반적으로 창업자, 대학 등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의미한다(관계부처 합동, 2011).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 Moore(1996)는 자생생태계 이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생태계(Ecosystems of business)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창업생태계(Ecosystems for start-ups)를 상호작용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기반을 둔 경제공동체로 정의하였다. Isenberg(2010)는 창업생태계를 전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창업생태계의 주요 요소를 정부 규제와 지원인 정책(Policy), 재정 서비스를 의미하는 금융(Finance), 사회적 규범과 창업의지 고취 등의 문화(Culture), 민간기관, 인프라, 전문가의 지원(Supports), 인력과 교육시스템 등의 인적자원(Human capital), 창업가의 네트워크와 고객을 의미하는 시장(Markets)으로 제시하였다. Isenberg(2010)에 의해 지역 중심의 창업생태계에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김소연 외, 2020). ALEISA(2013)는 창업생태계를 하나의 사회적 관점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가, 잠재력있는 신생기업, 멘토진과 자본력을 갖춘 인큐베이터, 시장 초기 고객들과 미디어로 구성된 사회집합으로 정의하였다. Acs et al.(2014)은 사업 진행의 결과에 지역적, 환경적 맥락

(Regional context)이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생태계의 주요 주체들로 기업체가 속한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을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Spigel(2015)은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를 크게 문화적 특성(Cultural attributes), 사회적 특성(Social attributes), 물리적 특성(material attributes)으로 분류하였다. 문화적 특성은 기업가정신의 역사(Histories of entrepreneurship), 지원적 문화(Supportive culture)로 구성된다.

사회적 특성은 네트워크(Networks), 멘토 및 창업모델(Mentors and Role models), 역량있는 인재 확보(Worker talent), 투자 자본(Investment capital)으로 구성된다. 물리적 특성의 경우, 대학(Universities), 물리적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 시장의 개방성(Open markets), 정책과 거버넌스(Policy and Governance),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s)를 포함한다.

Adner(2017)는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를 개인, 조직, 물리적 자원, 사회구조, 문화적 가치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로 구성된 체계를 창업생태계로 정의하였다. Cavallo et al.(2019)는 생태계의 정확한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Entrepreneurial Ecosystems(EE)는 비즈니스 및 혁신 생태계의 여러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systems)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EE는 새로운 벤처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대용·김영수(2000)는 창업생태계를 핵심요소(창업기업, 벤처 캐피탈, 회수시장 등), 기반요소(법률, 대학, 연구소, 벤처 보육센터, 대기업), 외부요소(정부, 해외벤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양현봉·박종복(2011)은 창업가, 창업지원기관, 자금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으로 정의하였다. 이대기(2014)는 창업가, 대학 등 창업지원기관,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출연, 확장, 성숙, 자기재생 또는 쇠퇴의 과정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으로 정의하였다. 이우진 외(2020)는 지역 창업생태계 측정지표로 정책, 투자, 문화, 시장, 인적자원, 지원, 지식의 7개 지표와 22개 하위요인, 38개 세부요인을 제시하였다. 정행로·양동우(2021)는 창업생태계를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자원과 행위자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창업생태계의 의미 및 구성요소

학자명	창업생태계 의미 및 구성요소
Moore(1996)	상호작용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기반을 둔 경제공동체
Isenberg(2010)	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적자원, 시장으로 구성
ALEISA(2013)	하나의 사회적 관점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가, 잠재력있는 신생기업, 멘토진과 자본력을 갖춘 인큐베이터, 시장 초기 고객들과 미디어로 구성된 사회집합
Acs et al.(2014)	기업체가 속한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으로 구성

Spigel(2015)	문화적 특성, 사회적 특성, 물리적 특성 중요 문화적 특성(기업가정신의 역사, 지원적 문화) 사회적 특성(네트워크, 멘토 및 창업모델, 역량있는 인재 확보, 투자 자본) 물리적 특성(대학, 물리적 인프라, 시장의 개방성, 정책과 거버넌스, 지원 서비스)
Adner(2017)	개인, 조직, 물리적 자원, 사회구조, 문화적 가치 등으로 구성된 체계
Cavallo et al.(2019)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s)란 비즈니스 및 혁신 생태계의 여러 측면을 공유하며, 새로운 벤처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대용·김영수 (2000)	창업생태계는 핵심요소, 기반요소, 외부요소로 구성 핵심요소(창업기업, 벤처 캐피탈, 회수시장 등) 기반요소(법률, 대학, 연구소, 벤처보육센터, 대기업) 외부요소(정부, 해외벤처)
양현봉·박종복 (2011)	창업가, 창업지원기관, 자금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
이대기(2014)	창업가, 대학 등 창업지원기관,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출연, 확장, 성숙, 자기재생 또는 쇠퇴의 과정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
이우진 외(2020)	지역 창업생태계 측정지표 : 정책, 투자, 문화, 시장, 인적자원, 지원, 지식(7개 지표, 22개 하위요인, 38개 세부요인)
정행로·양동우 (2021)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자원과 행위자 집합

청년창업생태계란 창업자의 범위를 청년으로 한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청년기업가를 생태계 구성의 핵심요소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양현봉·박종복, 2011). 청년창업생태계의 특징으로 창업생태계보다 창업가, 지원기관, 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고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나 지원이 강조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박재환 외(2012)는 창업생태계 관점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통합창업서비스 기관을 육성하여 창업 관련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는 등 지역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김민서 외(2022) 또한 COVID-19 이후 준비된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청년창업 거점 조성 및 역할의 강화, 청년창업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학창업생태계를 비교하였을 때, 미국의 대학창업생태계는 창업친화적인 대학 환경, 효과적인 외부자원의 활용, 기업가정신이 높은 대학생, 투자자와 시장친화적인 지원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안기돈·이택구, 2018).

청년창업생태계의 발전방향은 청년창업가가 지역사회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창업 기업의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삶의 가치를 위해서 발달하는 것이다(ALEISA, 2013).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는 창업기관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균형있는 지역창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민간-대학을 연계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창업생태계는 창업기업들의 창업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창업가, 창업지원기관, 투자기관의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생물학적 생태계로 정의하고, 청년창업생태계는 창업 기업을 청년으로 한정지는 창업생태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지역 연계 청년창업 지원

청년실업의 해결방안이자 미래성장동력 창출의 대안으로 청년창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Verheul et al.(2001)에 따르면, 창업가의 활동수준은 국가와 시간에 따라 다르며,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서 실현된 기업가정신의 활동 수준과 바람직한 기업가정신 수준 간의 균형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내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2b).

중소벤처기업부(2021)는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 활성화의 지역별 중심 거점 지역별 조성 및 역할 강화,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청년들의 창업 재도전 환경 개선을 4대 분야로 선정하였다. 특히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지역내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은 서로 연계하여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대학-지역 연계 청년창업 지원 사례로 교육부의 지역혁신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중심대학이 있다.

교육부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역의 인재양성 정책을 총괄하는 거점기구로서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자체, 대학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지역의 대학 간 핵심 분야 연계, 교육체계 개편, 협업 과제 수행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사업 중 대학 간 취·창업 연계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대학 간 취·창업 연계를 위한 협업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혁신사업은 2022년 계속지원 플랫폼 4개와 신규지원 플랫폼 2개 총 6개가 운영될 예정이며 국고 2,4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교육부, 2022).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내 청년창업의 거점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창업중심대학은 기존의 예비창업가나 초기 창업단계 위주로 구성된 기존의 창업육성 프로세스를 보완하여 대학 내·외부 청년들의 창업 확산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원권(강원),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의 권역별로 총 6개의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지정하였다.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게는 최

대 5년 동안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주관기관 자격을 보장하고, 최대 75억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지역내 창업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1). 이렇듯 대학은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 핵심 거점으로써 단순히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내 청년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기대를 수행해야 한다.

2.3.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측면에서 창업의 역할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안기돈·이택구, 2018).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창업의도가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활동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장수덕·이재훈, 2014),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의지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학 내의 창업교육이 필요하다(서성열 외, 2017).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기술창업과 신사업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원상필·조근태, 2018).

이러한 흐름에 따라 대학에서는 창업강좌 확대, 창업동아리, 창업 관련 대체학점 인정 및 휴학 제도 등을 운영하여 창업의도가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지안·안영식, 2019). 또한,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등 대학생을 넘어 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의도나 성과는 높아졌으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화 이후의 지원 시스템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김민서 외, 2022).

2.4. 청년창업 지원 요구분석

청년창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생태계의 핵심요소인 청년창업가의 요구분석을 기초로 한 청년창업생태계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성훈·남정민(2016)은 대한민국의 창업생태계 현황과 인식을 알아보고 창업지원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안태욱·강태원(2020)은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지역에 창업

에 관심 있는 청년 41명을 대상으로 AHP를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청년계층(대학생, 예비창업자, 기창업자)별로 창업 애로요인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난 점을 강조하였다. 김용태(2021)는 지역사회에서 전문대학이 창업교육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예비)창업가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대학에서의 청년창업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장수덕·이재훈(2014)는 대학생 창업활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대학 차원의 청년창업 지원의 통합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서성열 외(2017)는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외 3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상필·조근태(2018)는 정부와 대학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첨단 기술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육성 방안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성호 외(2020)는 D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대학의 창업발전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거나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다(이성호 외, 2020; 원상필·조근태, 2018; 서성열 외, 2017; 장수덕·이재훈, 2014). 이는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단순히 창업가를 넘어 창업지원정책과 지역 내 청년의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등 거시적인 분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를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범위인 ‘19세 이상 34세 미만’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정의한 청년창업가의 범위인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가와 창업가’를 모두 포함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였다.

또한, 대학알리미(2021)의 공시대상 대학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대학을 보유한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별 대학 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지역별 대학 현황

지역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서울	56	11	21
대구	4	10	0
광주	11	7	0
울산	2	3	1
강원	13	11	0
충남	18	9	1
전남	12	11	0
경남	10	13	0
세종	3	1	1
부산	17	9	0
인천	6	5	2
대전	13	5	2
경기	38	35	15
충북	13	6	0
전북	11	10	1
경북	20	19	1
제주	2	3	0
합계	249	168	45

출처 : 대학알리미(2021). 전국 공시대상 대학 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창업가 대상의 창업 준비단계 당시 창업가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 취업상태는 59.7%, 미취업상태는 40.3%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 중에서 취업상태인 직장인이 62.87%로 나타난 결과와 연결된다. 창업 준비단계에서 창업자 취업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창업자 취업상태(국가통계포털, KOSIS)

구분	취업상태	미취업상태
소계	59.70	40.30
업력	1년	43.10
	2년	44.70
	3년	40.00
	4년	39.60
	5년	40.50
	6년	33.90
	7년	27.60
창업자 연령	20대 이하	45.4
	30대	40.8
	40대	42.1
	50대	39.8
	60대 이상	35.6

출처 : 국가통계포털(2022). 2019 창업자 취업 상태

표본추출은 서울시 청년을 모집단으로 비례할당표본을 기본으로 하여 성북구 표본이 추가로 할당되었다. 성북구는 25개 자치구 중 대학 분포율이 가장 높고,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표본 추출

구분	계	비율	표본 추출	설문조사 응답
합계	2,008,205	100.00	1,025	509
강남구	110,987	5.53	53	28
강동구	73,387	3.65	35	26
강북구	52,833	2.63	25	12
강서구	137,778	6.86	65	25
관악구	136,619	6.80	65	22
광진구	82,293	4.10	39	14
구로구	81,937	4.08	39	15
금천구	48,420	2.41	23	15
노원구	90,574	4.51	43	20
도봉구	53,095	2.64	25	10
동대문구	74,365	3.70	35	12
동작구	91,106	4.54	43	16
마포구	90,612	4.51	43	9
서대문구	68,064	3.39	32	11
서초구	86,851	4.32	41	17
성동구	69,229	3.45	33	17
성북구	85,371	4.25	115	103
송파구	141,328	7.04	67	35
양천구	78,901	3.93	37	22
영등포구	84,157	4.19	40	24
용산구	48,481	2.41	23	11
은평구	90,151	4.49	43	20
종로구	31,449	1.57	15	7
중구	27,023	1.35	13	6
중랑구	73,194	3.64	35	12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5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총 1,025부가 수거되었고, 그 중 반복 번호로만 응답하거나 전혀 다른 답변을 하는 등 불성실한 응답 516부를 제외하고 총 509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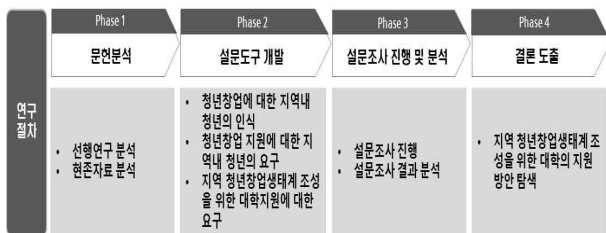
<표 5> 연구대상

구분	내용	응답현황	
		응답 수	비율(%)
성별	남성	219	43.00
	여성	290	57.00
연령	만 19세 ~ 29세	193	37.92
	만 30세 ~ 39세	316	62.08
직업	직장인	320	62.87
	자영업 및 창업 등	24	4.72
	자유직 / 프리랜서	40	7.86
	무직(은퇴 등 비자발적 상태)	38	7.47
	가사 및 육아	19	3.73
	학생	68	13.36

최종학력	중학교	3	0.59
	고등학교	77	15.13
	전문대학교	64	12.57
	4년제 대학교 이상	365	71.71
거주지	강남구	28	5.50
	강동구	26	5.11
	강북구	12	2.36
	강서구	25	4.91
	관악구	22	4.32
	광진구	14	2.75
	구로구	15	2.95
	금천구	15	2.95
	노원구	20	3.93
	도봉구	10	1.96
	동대문구	12	2.36
	동작구	16	3.14
	마포구	9	1.77
	서대문구	11	2.16
	서초구	17	3.34
	성동구	17	3.34
	성북구	103	20.24
	송파구	35	6.88
	양천구	22	4.32
	영등포구	24	4.72
용산구	11	2.16	
은평구	20	3.93	
종로구	7	1.38	
중구	6	1.18	
중랑구	12	2.36	
합계		509	100.00

3.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첫째, 문헌분석을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둘째, 도출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회수된 설문지를 토대로 청년창업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인식,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요구,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지원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넷째, 문헌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을 탐색하였다. 자세한 연구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3.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청년창업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인식,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지원에 대한 요구와 관련한 내용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청년 대상 설문조사는 응답자 일반사항, 청년창업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인식,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지원에 대한 요구 총 4개 영역과 하위 21개의 필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 21개 문항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여 잠재요인을 추출하였다. 표본적합도(MSA)는 0.839로 나타나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 = 3140.320$, $p = 0.000$ 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변수 간의 상관성이 인정되어 전반적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청년창업에 대한 이미지 중 ‘현실성이 부족함’ 중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0.5미만으로 나타났으므로 설명력이 낮다고 판단, 제거하였다.

이에 6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1은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미래중요도, 요인2는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재실행도, 요인3은 청년창업에 대한 이미지1, 요인4는 선호하는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방법1, 요인4는 청년창업에 대한 이미지2, 요인5는 선호하는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방법2로 각각 명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KMO의 표본적합도(MSA) 검정		0.83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Approx χ^2	3140.320					
	자유도(df)	231					
	p	.000***					
<i>*p<.05, **p<.01, ***p<.001</i>							
항목	공통성	요인					
		1	2	3	4	5	6
미래중요도 (창업교육)	.678	.791	-.045	.105	.149	.124	-.042
미래중요도 (창업육성지원)	.658	.762	.008	.114	.158	.196	-.032
미래중요도 (창업공간조성)	.596	.750	-.025	.119	.024	.090	.100
미래중요도 (멘토링)	.586	.735	.004	.062	.089	.183	-.022
미래중요도 (창업행사)	.588	.712	.057	.091	.121	-.145	.184

현재실행도 (멘토링)	.634	.036	.793	-.001	.005	.016	.059
현재실행도 (창업교육)	.634	.055	.790	.035	.055	.050	-.007
현재실행도 (창업육성지원)	.609	.009	.776	-.012	-.024	-.070	.037
현재실행도 (창업공간 조성)	.619	-.133	.755	.140	.072	-.058	.048
현재실행도 (창업행사)	.581	.014	.735	.059	-.041	-.106	.152
이미지 (지역발전예 공헌하는)	.682	.152	.079	.785	.063	.118	.135
이미지 (지역상생을 위한)	.641	.094	.085	.773	.113	-.111	.048
이미지 (필요한)	.550	.271	.026	.531	.077	.420	.106
지원방법 (온라인강의)	.691	.116	.032	.193	.771	-.097	-.188
지원방법 (단기 특강 프로그램)	.567	.098	.058	-.023	.723	.139	.104
지원방법 (혼합형 강의)	.400	.249	-.045	.108	.539	.100	.154
이미지 (현실성이 부족한)	.491	-.039	.122	.081	.059	-.680	.045
이미지 (도전적인)	.519	.285	-.011	.240	.245	.566	.019
이미지 (변화하는 시대에 잘 맞는)	.615	.279	.042	.436	.171	.553	.104
지원방법 (학습동아리 등 동호회 모임)	.628	.090	.150	-.067	.214	.073	.736
지원방법 (장기 프로그램)	.522	.064	.044	.177	-.046	.067	.691
지원방법 (숙박형 집중 이수 프로그램)	.570	-.035	.106	.206	-.094	-.405	.585
요인명	미래 중요도	현재 실행도	이미지1	지원 방법1	이미지2	지원 방법2	
고유값	4.625	3.245	1.549	1.393	1.226	1.020	
분산비율	21.023	14.750	7.040	6.331	5.573	4.636	
누적분산비	21.023	35.773	42.813	49.145	54.717	59.354	

조사도구의 내적일관성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분석하기 위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가 0.78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값이 0.60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설문지 주요 내용

구분	설문 주요 내용	신뢰도 계수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거주지	-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재실행도 창업공간 조성 창업교육 창업행사 멘토링 창업육성 지원 기타(주관식)	.834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미래중요도 창업공간 조성 창업교육 창업행사 멘토링 창업육성 지원 기타(주관식)	.831
청년창업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인식	대학에서 진행될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1,2순위)	-
	청년창업에 대한 이미지	.736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지원에 대한 요구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참여기관 선택기준	-
	선호하는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참여기간	-
	선호하는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방법	.365

3.4. 분석도구

The Locus for Focus 모형은 미래의 필요도와 현재의 실행도와 미래의 필요도의 차이의 2개축으로 구성된 좌표평면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구분석의 방법이다(김인숙·양지희, 2020; Mink, 1979).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는 김영문·강태균(2022)의 경우, 창업보육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에서 지원서비스 요인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 분석을 위해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이용하였다. 양지희·리상섭(2021)은 여성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이용하여 셀프리더십 역량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으며, 여성 예비 청년창업가와 여성 실제청년창업가를 비교하여 창업지원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셀프리더십 역량을 도출하였다. 이지안·안영식(2019)은 대학에서의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이용하여 창업역량을 개발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과 실제 수행하는 현재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The Locus for Focus 모형은 총 4개의 섹터 관심영역(HL), 최우선 영역(HH), 만족영역(LH), 무시영역(LL)으로 구성된다. 섹터 2 최우선 영역(HH)은 미래필요도가 높고, 미래필요도와 현재 달성도의 차이가 큰 영역으로 가장 높은 요구를 보이는 섹터이며, 섹터 1 관심영역(HL)은 미래필요도와 현재 달성도 차이가 평균값보다 높고, 미래필요도는 평균값보다 낮은 영역으로 최우선 영역(HH)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다. 섹터 3 만족영역(LH)은 현재와 미래의 차이 값은 평균보다 낮고, 미래필요도는 평균보다 높은 영역으로 현재 수준과

미래필요도가 비슷하게 높기 때문에 낮은 요구가 있는 영역으로 간주한다. 섹터 4 무시영역(LL)은 현재와 미래의 차이 값이 평균보다 낮고, 미래필요도 역시 평균보다 낮은 영역으로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우선순위는 현재실행도와 미래필요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구분하며, 좌표평면 상 우선순위가 보이는 등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양지희·리상섭, 2021; 김인숙·양지희, 2020; Mink, 1979).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현재(s)와 미래(Should be)의 차이	섹터 1 (H): 관심영역 평균보다 높은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 값 / 평균보다 낮은 필요수준	섹터 2 (HH): 최우선영역 평균보다 높은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 값 / 평균보다 높은 필요수준
	섹터 4 (LL): 무시영역 평균보다 낮은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 값 / 평균보다 낮은 필요수준	섹터 3 (LH): 만족영역 평균보다 낮은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 값 / 평균보다 높은 필요수준
미래(Should be)의 필요도		

<그림 2> The Locus for Focus 모형

3.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청년창업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인식과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지원에 대한 요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SPSS Ver.26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진행하였다. 둘째,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분석과 관련하여, 각 항목에 대한 현재실행도와 미래필요도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의 시각적인 우선순위 확인을 위해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4.1. 청년창업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인식

4.1.1. 대학의 지역 연계 프로그램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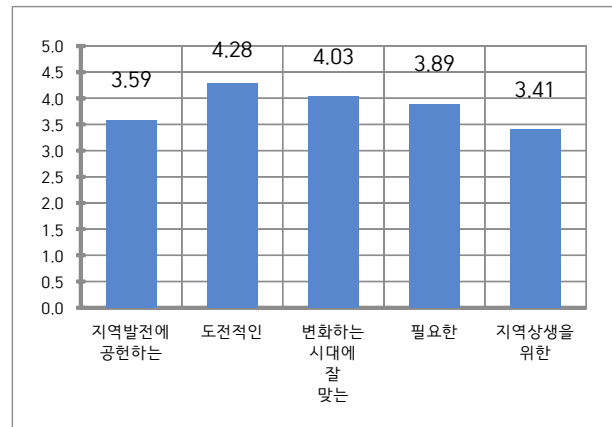
대학의 지역 연계 프로그램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창업 프로그램이 1순위 179건(35.17%), 2순위 92건(18.07%)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1순위로 선정한 프로그램은 청년창업 프로그램 다음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25.34%), 문화·예술 프로그램(12.38%) 순으로 도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대학 연계 프로그램

대학의 지역 연계 프로그램	1순위	퍼센트	2순위	퍼센트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129	25.34	66	12.97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179	35.17	92	18.07
주민창업 지원 프로그램	46	9.04	71	13.95
문화·예술 프로그램	63	12.38	93	18.27
디지털 활용 프로그램	25	4.91	57	11.20
평생교육 프로그램	44	8.64	90	17.68
산업진흥 프로그램(산학협력)	23	4.52	40	7.86
합계	509	100.00	509	100.00

4.1.2. 지역내 청년창업에 대한 이미지

지역내 청년창업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전적인(4.28점)’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상생을 위한(3.41점)’이라는 이미지가 낮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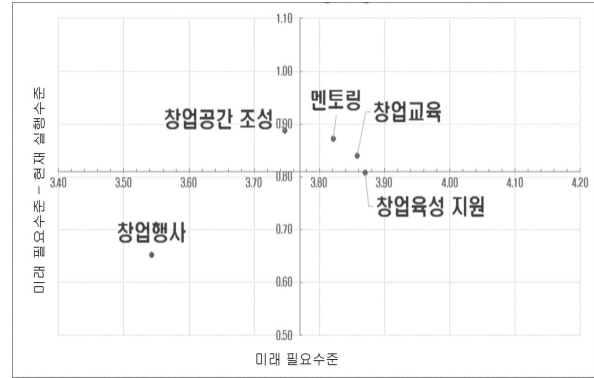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내 청년창업에 대한 이미지

기타 의견으로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도출되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는 창업, 창업가, 지역협력의 관점이 도출되었다. 창업 관점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혁신적인 등의 이미지가 도출되었고, 창업가 관점에서 리더십 있는, 열정적인, 젊은 등의 이미지가 도출되었으며, 지역협력 관점에서 사회에 큰 밑거름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등의 이미지가 도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지역내 청년창업에 대한 이미지(주관식)

구분		내용
긍정적 이미지	창업 관점	새로운, 색다른, 참신한, 창의적인, 창조적인, 혁신적인
	창업가 관점	건실한, 끈끈한, 리더십 있는, 매력있는, 모험적인, 문화적인, 성실한, 연구중심의, 열정적인, 자기개발의, 젊은
	지역 협력 관점	꼭 필요한, 사회에 큰 밑거름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상생발전의, 상호보완적인, 선구적인, 설계적인, 지역주민과의 연계, 지원이 필요한, 협력을 위한
부정적 이미지		경험이 부족한, 도박적인, 불확실한, 실패확률이 높은, 유행에 따르는, 희생하는, 힘이 드는



<그림 4> The Locus for Focus: 청년창업 지원 우선순위(전체)

4.2.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

4.2.1. 대학-지역 연계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

대학-지역 연계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고자 현재실행도와 미래필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대학-지역 연계 청년창업 지원 요구 차이 검증

구분		기술통계량			t
		N	평균 (M)	표준편차 (SD)	
창업공간 조성	현재실행도	509	2.86	.916	-15.538***
	미래필요도	509	3.75	.849	
창업교육	현재실행도	509	3.02	.934	-14.876***
	미래필요도	509	3.86	.885	
창업행사	현재실행도	509	2.89	.889	-12.577***
	미래필요도	509	3.54	.877	
멘토링	현재실행도	509	2.95	.944	-15.502***
	미래필요도	509	3.82	.895	
창업육성 지원	현재실행도	509	3.06	.970	-13.470***
	미래필요도	509	3.87	.936	

*p<.05, **p<.01, ***p<.001

4.2.2. 대학-지역 연계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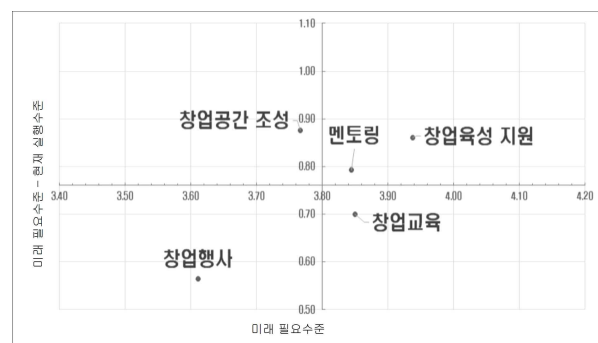
대학-지역 연계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분석한 결과, 섹터 2(HH) 최우선 영역은 ‘멘토링’, ‘창업교육’으로 도출되었다. 섹터 1(HL) 관심 영역은 ‘창업공간 조성’으로 도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대학-지역 연계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The Locus for Focus: 요구분석(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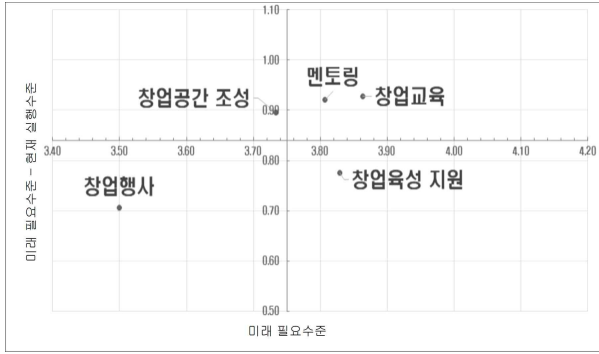
내용	미래필요도 평균(M)	미래 필요- 현재 실행 평균(M)	섹터	우선 순위
창업공간 조성	3.75	0.89	관심영역(HL)	3
창업교육	3.86	0.84	최우선영역(HH)	2
창업행사	3.54	0.65	무시영역(LL)	-
멘토링	3.82	0.87	최우선영역(HH)	1
창업육성 지원	3.87	0.81	만족영역(LH)	-
합계	3.77	0.81		

대학-지역 연계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는 섹터 2(HH) 최우선 영역으로 ‘멘토링’, ‘창업육성 지원’이 도출되었다. 섹터 1(HL) 관심 영역은 ‘창업공간 조성’으로 도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The Locus for Focus: 청년창업 지원 우선순위(20대)

30대는 섹터 2(HH) 최우선 영역으로 ‘멘토링’, ‘창업교육’이 도출되었다. 섹터 1(HL) 관심 영역으로는 ‘창업공간 조성’이 도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The Locus for Focus: 청년창업 지원 우선순위(30대)

연령별로 대학-지역 연계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30대에서 만족영역(LH)로 분석된 ‘창업육성 지원 프로그램’이 20대에서 높은 요구를 보였으며, 20대에서는 만족영역(LH)으로 분석된 ‘창업교육’이 30대에서 높은 요구를 보이는 등 상이한 요구를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The Locus for Focus: 요구분석(연령별)

내용	20대		30대	
	섹터	우선 순위	섹터	우선 순위
창업공간 조성	관심영역(HL)	3	관심영역(HL)	3
창업교육	만족영역(LH)	-	최우선영역(HH)	1
창업행사	무시영역(LL)	-	무시영역(LL)	-
멘토링	최우선영역(HH)	2	최우선영역(HH)	2
창업육성 지원	최우선영역(HH)	1	만족영역(LH)	-

4.3.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 지원에 대한 요구

4.3.1.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참여기관 선택기준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참여기관의 선택기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 1순위로 거주지와의 거리 또는 교통편의(26.92%), 수강료의 저렴한 정도(17.88%), 수료 결과의 생활 활용 가능성(15.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는 수강료의 저렴한 정도(18.66%),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15.91%), 수료 결과의 생활 활용 가능성(15.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한 결과, 서울시 거주 청년들은 거주지와의 거리 또는 교통편의, 수강료의 저렴한 정도, 수료 결과의 생활 활용 가능성 등을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생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청년창업 지원 참여기관 선택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거주지와의 거리 또는 교통편의	137	26.92	56	11.00
프로그램 강사 수준 및 명망	60	11.79	67	13.16
수강료의 저렴한 정도	91	17.88	95	18.66
교육기관의 사회적 인정 및 명성	40	7.86	46	9.04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	41	8.06	81	15.91
참가자 사이에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	26	5.11	31	6.09
수료 후에도 계속 학습을 이어갈 가능성	34	6.68	54	10.61
수료 결과의 생활 활용 가능성	79	15.52	79	15.52
기타	1	0.20	0	0.00
합계	509	100	509	100

4.3.2.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참여기간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의 참여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1개월 이내 프로그램(32.16%), 3개월 이내 프로그램(28.68%), 1주일 이내 프로그램(14.15%)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또한 단기 프로그램(8.64%), 장기 프로그램(8.25%), 6개월 이내 프로그램(7.6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참여기간

구분	빈도	퍼센트
단기 프로그램(당일, 1박2일 등)	44	8.64
1주일 이내 프로그램	72	14.15
1개월 이내 프로그램	166	32.61
3개월 이내 프로그램	146	28.68
6개월 이내 프로그램	39	7.66
장기 프로그램(6개월 이상)	42	8.25
합계	509	100.00

4.3.3.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방법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단기 특강 프로그램(3.81점), 대면교육과 온라인강의 혼합형(3.73점), 온라인강의(3.6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장기프로그램(3.14점), 숙박형 집중 이수 프로그램(2.17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방법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SD)
숙박형 집중 이수 프로그램	509	2.17	1.227
대면교육과 온라인강의 혼합형	509	3.73	0.954
온라인강의	509	3.65	1.090
단기 특강 프로그램 (당일, 1박 2일 등으로 진행되는 특강형 프로그램)	509	3.81	0.924
장기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	509	3.14	1.036
학습동아리 등 동호회 모임	509	3.26	0.996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내 청년의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여 대학의 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인식,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요구,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지원 요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학의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요구에 대해 ‘청년창업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지역내 청년창업에 대한 이미지는 ‘도전적인’, ‘변화하는 시대에 잘 맞는’이라는 이미지가 높게 인식되었고, ‘지역상생을 위한’이라는 이미지는 낮게 인식되었다.

둘째,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지역내 청년의 요구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요구가 나타났고, 우선순위는 ‘멘토링’, ‘창업교육’, ‘창업공간 조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는 ‘창업육성 지원 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요구를 보였으며, 30대는 ‘창업교육’에 가장 높은 요구를 보이는 등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지원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참여기관 선택기준은 ‘거주지와의 거리 또는 교통편의’, ‘수강료의 저렴한 정도’, ‘수료 결과의 생활 활용 가능성’ 등이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참여기간은 1개월 이내 프로그램, 지역내 청년창업 지원 방법으로 단기 특강형 프로그램, 대면교육과 온라인강의 혼합형, 온라인강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의 지원에 대한 시사점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인프라와 지역 상생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 상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연령별 동일하게 최우선 영역으로 도출된 멘토링에 대한 요구에 맞는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이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창업

결과와 지역확산을 실현하는 것이고, 지역상생에 대한 낮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창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창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김성훈·남정민(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창업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조직 구축의 어려움, 부족한 자원과 실전경험을 고려한 멘토링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양영석·김명숙, 2016). 즉, 대학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수, 석·박사 등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창업성숙도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 내외부의 청년창업가, 지역현황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학 내 학과와 연결지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창업 활동이 지역 상생과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적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 운영 시에는 정부의 재정연계사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자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의 평가체계를 활용한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의 다면적 평가를 통해 일차원적인 청년창업 지원을 넘어 청년창업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창업지원을 위해서 창업 준비기간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김민서 외, 2022; 김용태, 2021; 오재우·양동우, 2014).

둘째, 대학 및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창업가를 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마이크로러닝(Micro Learning) 형태의 창업교육 콘텐츠를 창업단계별로 개발하고, 이를 대학내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내 청년창업가 육성 및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가들은 다양한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편적인 창업정보, 이론전달식의 교수방법 등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김용태, 2020). 창업기업은 각각의 분야와 창업성숙도가 상이하며, 창업활동 시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청년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청년 개별 상황 및 각기 다른 창업 어려움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안태욱·강태원(2020)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COVID-19 이후 대학과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이크로러닝 형태의 창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러닝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창업의지를 제고하고, 지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효정(2019)의 마이크로러닝 필요성 연구, 대학내 마이크로러닝의 만족도와 효과를 연구한 배재홍·신호영(2020)의 연구를 청년창업 분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내 지역주민 개방형 청년창업 거점공간을 구성하여 청년창업가 협업공간을 구축하고, 대학내외의 창업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 지원방안에 대해 거주지와의 근거리

와 교통편의성 및 창업공간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학내 유휴공간을 중심으로 청년창업 거점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무상으로 개방하여 지역내 청년창업의 거점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경우, 청년에게 맞는 정책지원을 위한 상담오랑, 청년들의 지역 내 다양한 활동 참여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오랑 등 청년창업가를 넘어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지원 정책의 전문가가 상주하는 창업지원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서울청년센터 오랑, 2022). 이러한 대학 중심의 창업공간에서는 단순한 물리적 창업지원을 넘어 청년창업가의 창업 단계별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과 대학별 특성있는 창업과정과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내 예비청년창업가를 양성하고, 기존 청년창업가의 창업의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공간 내 네트워크를 통한 창업활동의 확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창업 기업을 지역 특화 산업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안기돈·이택구(2018)의 연구결과와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창업공간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김규현·유혜연(2021)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타 지역에 적용할 경우 일반화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지역적 확대를 통해 대학 및 지자체 간 비교 연구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책적, 실무적 관점에서 잠재적 청년창업가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대학 연계 청년창업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을 통해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과 대학에서의 청년창업 지원전략 수립 및 운영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

관계부처 합동(2011). *창업성과 점검 및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 제 85차 국민경제대책 회의.
 교육부(2022). *교육부 정책*. Retrieved(2022.05.01.) from www.moe.go.kr.
 국가통계포털(2022). 2019 *창업자 취업 상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017N_205&vw_cd=MT_ZTITLE&list_id=J2_22_001_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_path=MT_ZTITLE.
 김규현·유혜연(2021). 청년 창업공간의 운영방향 연구-서울시 은평구 창업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1(2), 732-735.
 김민서·박철민·정찬구·정혜연(2022). COVID-19와 청년창업. *한국창업학회지*, 17(1), 47-69.
 김성훈·남정민(2016).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 연구: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황 및 인식 비교 분

석. *벤처창업연구*, 11(6), 175-183.
 김소연·조민경·이무원(2020). 싱가포르 창업생태계 연구: Isenberg (2010) 프레임워크의 지역적 변용을 통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2), 47-65.
 김인숙·양지희(2020). 평생교육 공간에 대한 선호도 분석. *교육컨설턴트연구*, 4(2), 27-44.
 김영문·강태균(2022). Borich 요구도와 Locus for Focus Model을 이용한 창업보육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경영교육연구*, 37(2), 289-316.
 김용태(2020). 참여동기와 창업멘토링이 창업교육만족도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학생 창업유망팀 300(U-300)’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2), 267-277.
 김용태(2021). 체험형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5, 51-75.
 대학알리미(2021). *전국 공시대상 대학 현황*. Retrieved (2022.07.01.) from https://bit.ly/3CCJorW.
 박재환·박명수·김대엽(2012). 창업정책 현황과 창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경영교육연구*, 27(5), 1-30.
 배재홍·신호영(2020). 마이크로 러닝이 대학생의 학습만족도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7), 369-376.
 서울청년센터 오랑(2022).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Retrieved (2022.07.01.) from https://youth.seoul.go.kr/site/orang/home.
 서성열·윤종록·김광민(2017). 청년 창업지원시스템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의 조절효과 검증. *전문경영인연구*, 20(4), 527-546.
 이대기(2014). 금주의 논단: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개선점. *주간금융브리프*, 23(23), 3-9.
 이우진·오혜미·김도현·김종성·김기영(2020). 창업생태계 측정모형과 지표개발: 델파이분석을 통한 지역창업생태계 측정지표 개발. *벤처창업연구*, 15(4), 1-15.
 안기돈·이택구(2018). 미국과 한국의 대학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한국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경영교육연구*, 33(2), 401-422.
 안태욱·강태원(2020).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애로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2), 67-80.
 양지희·리상섭(2021). 여성 청년창업가의 셀프리더십 개발을 위한 역량 우선순위 분석. *교육컨설턴트연구*, 5(2), 25-45.
 양영석·김명숙(2016). 성공창업 실현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멘토링 플랫폼 구축방안: 한발대 이노폴리스캠퍼스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6), 143-152.
 양현봉·박중복(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대전: 산업연구.
 오재우·양동우(2014). 멘토링기능이 청년창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예비기간-창업희망기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5), 115-127.
 이성호·김정음·남정민(2020).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분석을 통한 대학창업발전방안 연구 D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4), 151-160.
 이지안·안영식(2019). 대학생의 창업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벤처창업연구*, 14(2), 73-82.
 원상필·조근태(2018). 정부와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기술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과 4차 산업혁명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3(2), 145-172.
 장수덕·이재훈(2014). 대학생 창업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학생 중심의 인지적 모델과 대학지원의 통합적 접근. *벤처창업연구*, 9(4), 65-76.
 정대용·김영수(2000). 벤처기업의 창업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평가와 벤처생태계 모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 163-196.
 정행로·양동우(2021). 직장인의 창업생태계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

- 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4(7), 1149-1181.
- 정효정(2019). 기업교육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설계 및 구현.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9), 1771-1780.
- 중소벤처기업부(2021).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Retrieved(2021.05.28.) from 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부(2022a). 2022년 중소기업지원사업 시책 자료. Retrieved(2022.05.01.) from 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부(2022b).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Retrieved(2022.7.1.) from https://bit.ly/3AsRjFR.
- 한국은행(2020). *강원도 벤처창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강원본부.
- Academyinfo(2021). *Current status of universities subject to national disclosure*. Retrieved(2022.07.01.) from https://bit.ly/3CCJorW
- Acs, Z. J., Autio, E., & Szerb, L.(2014). National Systems of Entrepreneurship: Measurement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Policy*, 43, 476-494.
- Adner, R.(2017). Ecosystem as structure: an actionable construct for strategy. *Journal of Management*, 43(1), 39-58.
- An, G. D., & Lee, T. K.(2018). A Study of Facilitating Korean Youth Startup by Analyzing the U.S. and Korean University Startup Ecosystem.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3(2), 401-422.
- Ahn, T. U., & Kang, T. W.(2020). A Study on Difficulty Factors of Youth Startups for Activating Local Startup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2), 67-80.
- ALEISA, E.(2013). *Startup Ecosystems: Study of the ecosystems around the world; focusing on Silicon Valley*. Toronto and Moscow.
- Bae, J. H., & Shin, H. Y.(2020). The Effect of Micro-Learning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7), 369-376.
- Bank of Korea(2020). *The actual situation and revitalization plan of venture start-ups in Gangwon-do*. Bank of Korea's Gangwon headquarters.
- Cavallo, A., Ghezzi, A., & Balocco, R.(2019). Entrepreneurial ecosystem research: Present debates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5(4), 1291-1321.
- Isenberg, D. J.(2010). How to start an entrepreneurial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88(6), 40-50.
- Jang, D. Y., & Kim, Y. S.(2000).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al Supporting Stages and the Ecosystem Model for Venture Companies. *Journal of Social Science*, 2, 163-196.
- Jang, S. D., & Lee, J. H.(2014). An Empirical Study of Students' Start-Up Activities: Integrated Approach of Student-Focused Cognitive Model and Supportive Activities of Univers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4), 65-76.
- Jointly related ministries(2011). *Start-up performance check and measures to promote global start-ups*. the 85th National Economic Conference
- Jung, H. J.(2019).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Micro-Learning for corporate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0(9), 1771-1780.
- Jung, H. R., & Yang, D. W.(2021).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Office Workers'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4(7), 1149-1181.
- Kim, G. H., & Yoo, H. Y.(2021). A Research on the Management Direction of Youth Startup Facilities-Focused on a Startup Facilities in Eunpyeong-gu, Seoul. *Architectural research*. 41(2), 732-735.
- Kim, I. S., & Yang, J. H.(2020). A Study on the Preference about Type of Public Space in Lifelong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Consulting & Coaching*, 4(2), 27-44.
- Kim, M. S., Park, C. M., Jeong, C. K., & Jeong, H. Y.(2022). Young entrepreneurship above the COVID-19 pandemic.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7(1), 47-69.
- Kim, S. H., & Nam, J. M.(2016).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Recognition Research: Focusing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Preliminary, Student 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and Recogn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175-183.
- Kim, S. Y., Cho, M. H., & Rhee, M. W.(2020). A Study on Singapore Startup Ecosystem using Regional Transformation of Isenberg(201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2), 47-65.
- Kim, Y. M., & Kang, T. G.(202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art-up Incubating Support Services Using Borich Requirements and Locus for Focus Model.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7(2), 289-316.
- Kim, Y. T.(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n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2), 267-277.
- Kim, Y. T.(2021). A Study on the effect of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Undergraduate Students'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entrepreneurship skills and entrepreneurship mediating effect. *The Journal of Korean Career-Entrepreneurship & Business Association*, 5, 51-75.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2022). *2019 entrepreneur's employment statu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017N_205&vw_cd=MT_ZTITLE&list_id=J2_22_001_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Lee, D. G.(2014). This week's discussion: Current status of Korea's startup ecosystem and points for improvement. *Weekly Financial Brief*, 23(23), 3-9.
- Lee, J. A., & Ahn, Y. S.(2019). Analyzing Education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73-82.
- Lee, S. H., Kim, J. E., & Nam, J. M.(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Start-up through the Analysis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Focusing on the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of D Univers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151-160.
- Lee, W. J., Oh, H. M., Kim, D. H., Kim, J. S., & Kim, G. Y.(2020). Developing Measurement Model and Indicators for Entrepreneurial Ecosystem: Focusing on Regional E-Ecosystem Indicator via Delphi Analysi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1-15
- Miller, D. J., & Acs, Z. J.(2017). The campus as entrepreneurial ecosystem: the University of Chicago. *Small Business Economics*, 49(1), 75-95.
- Mink, O. G.(1979). *Developing & Managing Open Organizations: A Model and Methods for Maximizing Organizational Potential*.
- Moore, J.(1996). *The death of competition: Leadership and strategy. The Age of Business Ecosystems*. New York, NY: HarperCollins.
- Ministry of Education(2022). *a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Retrieved(2022.05.01.) from www.moe.go.kr.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1). *Creating a youth start-up ecosystem to support young people's challenges!*. Retrieved(2022.5.28.) from www.mss.go.kr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2a). *Policy Data for SME Support Projects in 2022*. Retrieved(2022.5.1.) from www.mss.go.kr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2b).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Act*. Retrieved (2022.7.1.) from <https://bit.ly/3AsRjFR>.
- Orang at the Seoul youth center(2022). *What about Orang at the Seoul Youth Center?.* Retrieved(2022.07.01.) from <https://youth.seoul.go.kr/site/orang/home>.
- Oh, J. W., & Yang, D. W.(2014). The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oring Functions and Young generation Start-up Competence: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Start-up Preliminary period & Start-up Aim Period.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5), 115-127.
- Park, J. W., Park, M. S., & Kim, D. Y.(2012).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Policies of Fostering the Youth Start-up Firms within the Framework of Entrepreneurial Ecosystem.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7(5), 1-30.
- Seo, S. Y., Youn, J. R., & Kim, G. M.(2017). The Effects of Young Startup Support System for Start-Up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Creativity as a Moderator.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20(4), 527-546.
- Spigel, B.(2015). The Relational Organiza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1), 1-23.
- Startup Genome(2021).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1*. Retrieved from(22.03.08) <https://startupgenome.com/report/gser2021>.
- Verheul, I., Wennekers, S., Audretsch, D., & Thurik, R.(2001). *An Eclectic Theory of Entrepreneurship,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 Won, S. P., & Cho, K. T.(2018). The Effects of Business Incubator Programs of Government and Universities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echnology Start-Ups: Entrepreneurship and Percep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Mediator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2), 145-172.
- Yang, J. H., & Lee, S. S.(2021). A Study on Prioritization of Self-Leadership Development Required for Young Female Entrepreneurs: Focused on the Locus for Focus Model. *The Journal of Education Consulting & Coaching*, 5(2), 25-45.
- Yang, Y. S., & Kim, M. S.(2016). Effective Mentoring Platform Alternative to lead a Successful Startup: In the Center of Hanbat Innopolis Campus Progra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143-152.
- Yang, H. B., & Park, J. B.(2011). *A plan to create and revitalize the youth entrepreneurship ecosystem*. Daejeon: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A Study on the Support Method for Activate Youth Start-ups in University for the Creation of a Start-up Ecosystem: Focused on the Case of Seoul City

Kim In Sook*
Yang Ji 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demand of local youth and to find ways to support universities in order to create a youth start-up ecosystem. To this end, 509 young people living in Seoul were analyzed to recognize and demand young people in the region for youth start-ups, and to support universiti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young people's perception of youth start-ups in the region, the "Youth Start-up Program" was analyzed the highest in terms of the demand for regional programs by university. In addition, there was a high perception that the image of youth startups in the region was "challenging" and "good for changing times." Second, after analyzing the demand for support for youth start-ups in the region, it appeared in the order of mentoring, start-up education, and creation of start-up spaces. And it showed different needs for different ages. Third, the results were derived from analysis of the demand for university support for the creation of a regional youth start-up ecosystem, the criteria for selecting local youth start-up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period of participation in local youth start-up suppor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university support for the creation of a community of youth start-up ecosystem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sustainable symbiosis mentoring programs focusing on university's infrastructure and regional symbiosi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utilize step-by-step systematic microlearning content based on the needs analysis of prospective youth start-ups. Third, it is necessary to form an open youth start-up base space for local residents in universities and link it with the start-up process inside and outside univers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supporting youth start-ups and establishing and operating strategies for supporting youth start-ups at universities.

KeyWords: Youth Start-up, Youth Start-up Ecosystem, University-Regional Collaboration, Needs Analysis, The Locus for Focus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Department of Entrepreneurial Business Management & Consulting, Chungju, South Korea, Email: kis1@ut.ac.kr

** 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Student, Dongduk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Consulting, Seoul, South Korea. Email: yang2019@dongduk.ac.kr